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 [루게 제25094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항일의 로루사인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잠겨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인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고인의 명구가 안치된 중앙로동자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명구옆에 서있었다.

명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구발인에 앞서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련정에 묵상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리을설원수동지의 려구를 앞세우고 나오시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명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고인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러찌를

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는 수도의 거리들에는 우리 당의 충직한 호위전사이며 인민의 참된 아들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인 리을설동지와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었다.

장의행렬은 옥류교와 만수대거리, 보통문, 영웅거리, 비파거리를 통과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군민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고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리을설원수동지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절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선 호위전사, 항일의 로루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며 견결한 혁명투사로 자라난 그는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

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안팎의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셔버리었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과 결탁한 미제의 공중 폭격과 압해책동으로부터 혁명과 조국의 운명을 결사수호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공헌하였다.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는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모습, 한본새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옹위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만들어올리고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뚜렷한 자욕을 남기었다.

그는 우리 혁명이 력사에 류폐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제1선에서 호위하며 우리 당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제일충신, 혁명전우, 참다운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끝까지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을 받들려는 전사의 소망을 헤아리시어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우리 혁명의 원로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2 번 으 로 계 속

